

주 맞이

작성일 : 2010년 9월 10일(금) 새벽 4시 12분

작성자 : 김경미 (서울 은총교회, 목회자)

▶ 김경미

[주를 맞이한다는 것은 만나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인 것 같아 여쭙어 보았을 때 주신 마음의 대화입니다]

* 예수님 말씀 *

나를 맞는다는 것이 무엇일까?
그것은 너의 안에 나를 들인다는 것이다.
나의 사랑을 담고
너의 사랑을 담아
오직 한마음으로
오직 사랑함으로
나를 너의 안에 담는다는 말이다
알겠느냐?
네 마음에 그 어느 것도 두지 말고
오직 나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
깨끗하게 비우고 비워서
오직 나를 담는다는 것이다
너희는 알아야 한다.
이 마지막 때에
너와 내가 일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
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
그 무엇을 하든 온전할 수 있다
네 안에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
너는 모든 것을 비우고 비워
나를 맞이하도록 하여라.
사랑으로 온전히 단장하고
나를 맞이 하거라
나를 네 안에 들이도록 하여라.
네가 내가 될 수 있도록
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
너는 너의 모든 죄와 허물
그 모든 세상살이에 찌든 생각들
잡념들
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
그 무엇도 네 안에 존재케 하지 말고
오직 나 예수만이 네 안에 있도록 하여라.

오직 나 예수만이 네 안에 거할 수 있도록
너는 너의 모든 것을 비우고 비울지어다.
그리고 나를 찾아라.
찾고 또 찾을 지어다.
네 안에 담을 지어다.
외쳐라 나를 찾거라.
외쳐라 나를 배워라.
외쳐라 나를 네 안에 가득 담아라.
유일한 이 모든 사랑의 결정체
나 예수를 네 안에 담도록 하여라.
내가 너와 일체되고 하나 되어
너를 움직일 수 있도록
깊고 깊은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
너는 비고 비인 마음에
나를 담을 지어다.
나를 맞이하라 함이다
나를 맞아들이고
나와 하나 되어
아버지의 역사
생명구원의 역사 이루자 함이다
내 아버지 하나님
오늘도 내일도
너희의 사랑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지 않도록
네 안에 나를 담아
사랑 이루자
사랑이구나 오직 사랑이구나
내 사랑아
내가 너와 일체되고 하나 되어
아버지의 사랑 이루고
이 땅에 생명구원 역사 이루어
아버지의 세상 만들자
처음부터였다
처음 것이 되는 것이다
모두 아버지의 것 이었다
이제 모두 아버지의 것이 되어야 한다.
일어나 찾아라.
나의 신부들을
이 땅에 흠어져 있는 나의 어여쁜 신부들
지쳐 쓰러져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
너는 외쳐라 나의 복음을
이 재림의 복음을
네 선생과 함께 외칠 지어다
네 안에 나를 담고
네 선생과 하나 되어
오직 이 시대 재림의 복음을 외칠 지어다
유일무이한 아버지의 역사

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
너희는 외칠 지어다
외치고 외칠 지어다
사랑이다
아버지의 사랑이다
나 예수의 사랑이다
이 시대 사랑의 복음
이 시대 재림의 복음
나의 외침에 동참하자
나를 네 안에 들이고
이 시대 복음의 역사 이루자
자 오늘도 함께다
나를 잊지 마라
네 안에 나를 거하게 하여라.
나를 맞아 하나 되어
시대 복음의 역사 재림의 역사
휴거의 역사 이루자
나의 사랑아
나의 사랑들아
나와 하나 되어 나를 맞아
이 시대 생명구원의 역사 이루자
오직 한 생각을 하고
오직 나와 하나 되어
시대 복음의 역사 이루도록 하여라.
사랑이다
사랑이란 말이다
오직 사랑이지
사랑이구말구
사랑이다
나 예수는 사랑 이니라
재림도 사랑
휴거도 사랑
나 예수는 사랑이다
사랑 한다 나의 신부들아
나의 사랑의 역사 이루어다오
너희만을 바라보고 있는
나 예수를 잊지 말고
네 안에 들이고 들여 하나 되어
나의 사랑의 역사 이루자
하나 되어 이 시대 역사 함께 써보자
사랑 한다

너희를 죽도록 사랑하
는 신랑 예수가